

부위원장 모두발언

- 진입규제 개편방안 TF -

2018. 5. 2.

금 융 위 원 회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마무리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연구원 부원장님들, 금감원 및 협회 등
유관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드디어 최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진입문턱을 더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신설 금융회사가
대형사간 경쟁이 치열한 기존 금융산업에 진입해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
과당 경쟁에 따른 부실화 우려 등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근본 취지를
곡해하는 시각도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논란을 딛고
이번 최종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TF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의미

1.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한 인식

이제 최종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당초 금융위원회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했던
“초심”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이 거둔 성과는 상당합니다.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①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주식 등 금융시장 규모의 외형적 성장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견고한 성장^②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권도 손실분담 등을 통해 기업재무구조 개선^③에도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적폐’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합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혁신적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실물 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2.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의미

이러한 인식아래,
진입규제 개편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신년 간담회”에서도
주요과제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역시
인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금번 방안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축된 틀에서 큰 변화없이
약 20년간 유지되어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주요내용

1. 기본방향

이제부터,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①
진입장벽 낮추기^②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③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었습니다.

2.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겠습니다.

그간 금융업 진입정책 의사결정은
감독당국의 전유물(專有物)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진입정책 의사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적극적, 체계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 진입장벽 낮추기

두 번째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혁신적 참가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업 >

가장 고민이 많았던 은행업의 경우,
기존에 금융위가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 1년을 맞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기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보험업 >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참고하여,
연간 보험료 규모, 보험기간이 일정수준 이하인
리스크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①”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②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③ 신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 >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①가 등장할 수 있도록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1인 투자자문회사^② 등의 설립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자문, 일임업의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③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④ 신규 진입도 허용하겠습니다.

4.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진입장벽을 낮춘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감독당국 내부적으로만 공유되던 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인가매뉴얼에 반영하고,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인가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쟁점 발생시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라틴어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cta, non Verba”

“말보다는 행동으로”란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수차례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진입규제 개편, 경쟁촉진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업권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바와 같이
후속조치 실행을 위해서도
유관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